

잠언 4:10-19 ‘길’ 모티프의 번역과 해석 —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을 중심으로 —

원효섭*

1. 들어가는 말

잠언 4:10-19의 ‘길’ 모티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언 1-9장 전체의 신학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잠언의 신학적 토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1:7)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9:10)라는 두 선언에 집약되어 있다. 왈키(B. K. Waltke)는 이를 “지혜의 본질적 원천, 근본적 원리”라고 규정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모든 교육 과정을 지극히 높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순종적 자세가 지혜 습득의 근본 원리라고 강조한다.¹⁾ 이 두 구절은 1-9장을 포괄하는 신학적인 틀을 형성하며, 잠언에서 말하는 교훈들이 여호와 경외라는 기초 위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롱맨(T. Longman III)은 잠언 1-9장의 핵심 은유로 히브리어 **דָרֶכַח**를 제시하며, 길은 삶에서의 행동에 대한 풍부한 은유로서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²⁾ 롱맨은 잠언 1-9장에서 하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말한다.³⁾ 이러한 두 길의 대조는 이후에 지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대조로 발전한다. 이런 맥락에서 4장은 1-9장

* 현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약학 박사과정. sacrific@naver.com.

1) B.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441.

2) T. Longman III, *How to Read Proverb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2), 25.

3) *Ibid.*, 26.

구조에서 전환점 역할을 담당한다. 앞선 장들이 지혜의 가치를 제시했다면, 4장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며, 후속 장들의 지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대조를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구조적 중요성을 가진 잠언 4장은 내부적으로도 체계적인 구성을 보여 준다.

잠언 4장은 총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잠언 4:1-9, 10-19, 20-27로 나눌 수 있다.⁴⁾ 먼저 잠언 4:1-9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지혜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3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세대 간 지혜의 전승 구조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 잠언 4:10-19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두 갈래 길에 대한 명백한 대조를 통해 지혜의 길로 가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잠언 4:20-27은 마음, 입, 눈, 발 등 신체의 여러 부분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본 논고에서 세 단락 중 잠언 4:10-19를 중심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 4장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 단락(4:1-9)이 지혜의 세대 간 전승과 마지막 단락(4:20-27)이 실천적 차원에서 지혜를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면, 그 사이에 위치한 두 번째 단락(4:10-19)은 두 사이를 잇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1. 본 연구의 방향

잠언 4:10-19의 단락은 ‘길’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11, 14, 15, 18-19),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길’이라는 모티프를 ‘삶의 원리’, ‘삶의 방향’이라는 근본적 개념으

4) 클리포드(R. J. Clifford)는 잠언 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한다고 말한다. R. J. Clifford, *Proverbs: A Commentary*, 1st ed.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London; Leid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59; 김희석은 잠언 4장은 지혜 여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하면서 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한다.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성서학 학술세미나* (2010), 1-22; 오버랜드(P. Overland)는 잠언 4장을 세 개의 시(Poem)로 구분하며, 각각을 “모든 주체들의 서론”(4:1-9), “책망”(4:10-19), “몸의 행동”(4:20-27)으로 분류한다. 그는 특히 두 번째 단락(4:10-19)을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특징짓는다. P. Overland, *Proverbs*, D. W. Baker and G. J. Wenham, ed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15 (London: Apollos, 2022), 87.

5) B.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277.

로 바라보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등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잠언 4장에 나온 길은 장소적 혹은 역사적 개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폭스(M. V. Fox)는 잠언 1-9장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길이 있다고 말한다.⁶⁾ 이 두 길은 모두 시대를 초월한 현실이며, 이를 역사화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⁷⁾ 그러면서 폭스는 길의 모티프를 에를리히(Ehrlich)가 주장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추구하고 움켜잡는 존재를 위한 투쟁”으로 본다.⁸⁾ 이 해석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므로 길의 존재론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존재론적 의미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머피(R. E. Murphy)는 길에 대한 모티프는 하나의 상징적인 뜻을 함의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는 상징은 ‘길’, ‘단계’, ‘안내’, ‘달리기’, ‘비틀거림’, ‘걸기’, ‘가기’, ‘돌아서기’ 등이다.⁹⁾ 머피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조를 하며, 생명과 죽음의 대비를 통해 지혜의 길이 궁극적으로 생명에 까지 도달함을 강조한다.¹⁰⁾ 머피가 말하는 생명은 궁극적인 구원적 관점의 생명이며, 이는 윤리적 교훈을 넘어 신학적·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길이 어떻게 삶의 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적 측면이 부족하다.

롱맨은 지혜의 길을 전통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본다.¹¹⁾ 이 관점은 첫 번째 단락(4:1-9)의 지혜의 전승적인 가르침을 함께 강조하며 나아간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길이라는 모티프를 단순히 윤리적이며 교육의 전달 도구로만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학자들의 관점을 검토해 보면, 길 모티프에 대한 해석에서 일정한 한계가 드러난다. 폭스와 같은 학자들이 길의 존재론적 함의를 강조할 때는 구체적인 실천적 적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롱맨처럼 교육적·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 깊은 존재론적·구원론적 의미가 충분히 탐구되지 않는다. 머피의 구원론적 해석 역시 현대적 맥락에서의 적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6) M. V. Fox,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Yale Bible 18A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80.

7) Ibid.

8) Ibid., 179.

9) R. E. Murphy,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22 (Grand Rapids: Zondervan, 2015), 28.

10) Ibid.

11) T. Longman III, *Proverb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76.

본 논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길 모티프를 ‘삶의 원리’이자 ‘삶의 방향’으로 재해석하여 존재론적 깊이와 실천적 함의를 통합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마소라 본문(이하 MT)과 LXX를 비교하여 길 모티프의 원래 의미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잠언 4:10-19의 ‘동화현상’(assimilation)과 ‘이화현상’(dissimilation)을 검토해 번역자들이 이해했던 의미의 층위를 파악할 것이다.¹²⁾ 본 논고는 잠언 4:10-19의 길 모티프가 MT와 LXX 번역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구조화되고 신학적으로 해석되는지 비교 분석한다. 특히, LXX 번역자에 의하여 드러나는 동화/이화 현상에 주목하여 ‘길’의 삶의 원리와 방향성,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의 신학적 의미 변주 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번역학적 분석을 토대로 존재론적 의미와 실천적 적용을 아우르는 길 모티프의 통합적 해석을 제시한다. 이 접근은 MT와 LXX 비교를 통해 더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길 모티프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길’(קַיִל/ὁδός) 모티프의 언어적·의미론적 분석

2.1. 히브리어 קַיִל의 의미 스펙트럼

이 장에서는 MT에서 ‘길’이 갖는 원래적 의미와 문맥적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LXX 번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원문에서 확장되거나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는지를 대비할 논거로 삼고자 한다.

히브리어 קַיִל(길)은 구약에서 총 706회 등장하며 그 중 잠언에서 75회가

12) 토브(E. Tov)는 LXX가 오랜 세월을 걸쳐 번역되었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 대하여 세세한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 번역자가 생각한 단어의 의미와 현재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적절성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서울: 바오로딸, 2009), 70. 따라서 본 논고에서 동화/이화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① 동화(assimilation)로 분류할 항목

- 기본적인 어휘 대응(MT 단어가 LXX에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로 번역)
- 그리스어 문법에 맞춘 시제, 격, 어순 조정
- 단수/복수 변환(문맥상 의미 변화가 미미한 경우)

② 이화(dissimilation)로 분류할 항목

- 원문에 없는 구문, 절, 접속사의 실질적 추가(특히 ἵνα, γάρ 등 논리 구조 변경)
- 신학적 해석이 반영된 의미 확장
- 원문의 단어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대체(의미 변화가 큰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본 논고의 2.2를 보라.

사용되었다.¹³⁾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보통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도로일 것이다. 성경에서도 물리적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출애굽기 4:23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도착하는데, 이때 물리적 용법으로 דָּרֶךְ 가 사용되었다.¹⁴⁾ 그러나 이 단어는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층을 두고 있다. 뇌셔(F. Nötscher)는 이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인 공간-지리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적-비유적 의미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고 한다.¹⁵⁾ 메릴(E. H. Merrill)은 דָּרֶךְ 가 구약에서 물리적인 의미보다 비유적인 의미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고 말한다.¹⁶⁾ 이는 삶의 경험과 과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가장 일반적인 명사라는 것이다.¹⁷⁾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용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셈족 언어들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¹⁸⁾ 이러한 현상은 히브리 사상에서 '길'의 의미가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신학적 중요성을 보여 준다. 특히 구약에서 דָּרֶךְ 는 단순한 행동 양식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을 규정하며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라는 분명한 대조를 통해 길의 방향성과 원리를 제시하는 핵심 모티프로 기능한다.

13) E. Jenni and C.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343.

14) L. Koehler, W. Baumgartner, and M. E. J. Richardson,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94-2000), 231; דָּרֶךְ 는 דָּרַךְ (다라크, '밟다', '짓밟다')와 관련이 많다.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지속적인 걸음으로 형성된 길을 말하며, 창 3:24에서 타락 이후 "생명 나무로 가는 길"을 언급한다. 또한 하갈은 천사를 만났을 때 솔로 가는 길에 있었다(창 16:7). 때로는 요단 동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를 가리키기도 한다(민 20:17; 21:22). 우가릿어에서 동족 명사인 '다르카트'는 '지배권', '지배권의 왕좌'를 의미하는데, 때로는 '행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밟다'의 개념은 권위를 밟는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포프(Pope)는 욥기에서, 다후드(Dahood)는 시편에서 이 의미를 주장했다. 한편, 특별한 맥락에서는 "관습" 또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창 19:31(결혼 관습)과 31:35(여성의 방식)에서 이런 용례가 발견된다. 창조 맥락에서는 욥 40:19; 잠 8:22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며, 렘 3:13; 31:3에서는 성적 호의라는 특이한 의미로도 확장된다. H. Wolf, "453 דָּרֶךְ ", R. L. Harris,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ed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99), 196-197 참고.

15) Ibid., 344.

16) W.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989.

17) Ibid.

18) Ibid. 페니키아어, 아람어, 시리아어, 에티오피아어, 기타 서부 및 남부 셈족 방언 등.

2.2. LXX의 ὁδός 번역

히브리어 원문이 LXX에서 어떤 등가어로 선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브(E. Tov)는 모든 자료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MT, DS, SP, LXX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דָּרָגָה는 LXX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은 LXX 번역자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사용한 전략이 단순한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LXX에서 דָּרָגָה는 주로 ὁδός로 번역이 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τρίβος(길, 오솔길), πορεία(여정), ἴχνος(발자국, 흔적) 등 다양한 용어로도 번역이 되었다. 이는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리스 문화권 독자들에게 효과적이며,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를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LXX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동화/이화현상을 살펴보면 그 때 당시 의미를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다.²⁰⁾ 다음은 잠언 4:10-19에 나타난 ‘길’에 대한 등가 현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길’을 수식하는 어구도 포함을 시켰다.

<표 1> 잠언 4:11, 14, 18, 19 ‘길’ 등가 관계

절	MT	LXX	동화/이화현상
11	דָּרָגָה דָּרָגָה (지혜의 길)	ὁδοὺς σοφίας (지혜의 길들)	동화
	בְּמַעְגְּלֵי-אֲשֶׁר (올곧음의 길들)	τροχιαῖς ὀρθαῖς (올바른 길들)	동화

19) E. Tov, “Writing an Introduction to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A Modern Approach,” *Studia Biblica Slovaca* 15:2 (2023), 120-121.

20) 동화란 히브리어의 다른 동사 형태들이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각각 동일한 형태로 번역되는 것이다. A와 B형태가 /가/와 /나/형태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가/와 /가/형태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화는 히브리어의 같은 동사 형태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다른 동사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다. A와 A를 /가/와 /가/로 번역하지 않고, /가/와 /나/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상혁, “칠십인역의 번역 기술과 히브리어 동사 형태 - 읊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0 (2007): 311-328; LXX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 그리스어 동의어로 번역하며, 때때로 같은 문맥 안에서조차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몇 가지 경우에서의 변화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열망 때문에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히브리어 성경의 일반적인 단어는 LXX에서 하나 이상의 동의어를 가진다. H. B. Swete,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4), 328; 번역 기술은 문체와도 연관이 있다. 번역자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번역 기술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동화/이화현상을 분석할 때 경계가 달라질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잠 4:11의 접속사 γάρ, δέ의 추가는 “그리스어적 동화”로 볼 수도 있고, “원문에 없는 구조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이화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 기술과 문체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M. Harl, G. Dorival, and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éli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259-266을 보라.

절	MT	LXX	동화/이화현상
14	בְּאַרְחַת רָשָׁעִים (악인의 길)	ὁδοὺς ἀσεβῶν (불경건한 자의 길들)	동화
	בְּרַגְלֵי רָעִים (악한 자의 길)	ὁδοὺς παρανόμων (불법한 자의 길들)	동화
18	אַרְחַת צְדִיקִים (의인의 길)	ὁδοὶ τῶν δικαίων (의로운 자들의 길들)	동화
19	בְּרַגְלֵי רָשָׁעִים (악인의 길)	ὁδοὶ τῶν ἀσεβῶν (불경건한 자들의 길들)	동화

11절에서 **בְּרַגְלֵי הַכְּנָמָה**(지혜의 길)는 *ὁδοὺς σοφίας*(지혜의 길들)를 등가어로 사용하였다. 토브는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는 현상을 이문과 비이문(variants/non-variants)으로 구분하며, 고대 번역이 충분한 텍스트 비판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분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²¹⁾ 그래서 이러한 편차는 문법 및 번역 기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²²⁾ 그렇다면 LXX 번역자가 복수로 이것을 전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אַרְחַת**과 **רַגְלֵי**가 LXX에서 복수 *ὁδοὺς*로 번역된 현상은 일차적으로 번역 기법의 문제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LXX 번역자가 길과 관련된 하나의 의미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MT에서의 단수 표현인 **אַרְחַת**, **רַגְלֵי**가 LXX에서는 모두 복수 표현으로 바뀌었다(11, 14, 18, 19절). 이것은 번역자가 다층적 의미를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암시한다.²³⁾ 11절의 길은 **הַרְרֵכְתִּי**(히필, 완료)와 함께 쓰여 삶의 길 위에서의 가르침, 길에 대한 은유를 강조한다. 이 은유는 신적 계명과 관련이 있으며, “길 위에서 이끄는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²⁴⁾

21) E.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3rd ed.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169.

22) Ibid.

23) 11절, 14절, 18절, 1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고려할 때, 폭스는 고대 지혜문학에서 ‘길’이 공동체적 삶의 방향들을 내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잠언에서의 토라는 권위적이라고 말하면서 강제적 성격의 길에 대한 방향들, 즉 ‘지시사항들’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서는 다양한 삶의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M. V. Fox, *Proverbs 1-9*, 179; 왈키도 ‘올바른 길들’을 예시로 들면서 ‘지혜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복수 표현을 사용한다. 이 또한 길에 대한 다양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이다. B.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277; 그러나 토브의 지적대로 우선적으로 번역 기법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24) B. U. Schipper, *Proverbs 1-15: A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1:1-15:33*, T. Krüger, ed., S. Germany, tr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178.

MT에서 $\text{בְּמַעְגְּלֵי־אֲשֵׁר}$ (올곧음의 길들)은 LXX에서 τροχιαῖς ὀρθαῖς (올바른 길들)를 등가어로 사용했다.²⁵⁾ MT는 דָּרָךְ 대신 מַעְגָּל 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13회 사용되는데, 이 중 7회가 잠언 2-5장에 나타난다.²⁶⁾ 이 단어는 ‘궤적’을 의미하며 특히 “나의 발이 당신의 궤적(길) 위에서 있다”와 같이 사람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²⁷⁾ LXX 번역자는 MT의 의미에 대하여 동의하여 같은 의미층을 나타내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다만 길을 구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인 τροχιαῖς (바퀴 자국들)로 바꾸었다. 바퀴가 올바르게 길을 가야 도착지에 잘 도달할 수 있듯이, 지혜의 길은 바퀴가 궤적이 아닌 바른길을 따라가야 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퀴를 수식하는 ὀρθαῖς 는 ‘올바른’으로 번역함이 적절해 보인다.

14절에선 두 개의 MT 단어(דָּרָךְ , מַעְגָּל)가 하나의 LXX 단어(ὁδοῦς)로 번역되는 동화현상을 보인다. 여기서 מַעְגָּל 는 ‘길’, ‘지면’, ‘땀’, ‘따라야 할 길’, ‘선호되는 길’, ‘은유적 경로’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²⁸⁾ LXX 번역자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MT 단어를 ὁδοῦς 로 통합한다. 14절에선 ‘두 길’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극대화하는데, 번역자는 길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적인 길의 선택(의인/악인, 선/악)의 대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ὁδοῦς 로 통일함으로써 복잡한 MT 어휘의 뉘앙스를 단순화하고, 그리스 문화권의 일반적이며 삶의 원리적인 길과 관련된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18-19절도 14절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MT 단어(דָּרָךְ , מַעְגָּל)가 하나의 LXX 단어(ὁδοί)를 등가어로 사용하였다.

3. 잠언 4:10-19의 ‘길’ 모티프 분석

이제 MT와 LXX에 나타난 ‘길’ 모티프의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을 각 절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두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휘적 차이, 표현 방식, 동화/이화현상,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문법적/해석적 특징에 주목할

25) 여기선 수단/도구의 여격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을 번역하면 ‘올바른 바퀴 자국들로’이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62.

26) Ibid., 179.

27) Ibid.

28) L. Koehler, W. Baumgartner, and M. E. J. Richardson,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86-87.

것이다. 이를 통해 LXX 번역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함의를 어떻게 확대/축소 했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대조 분석을 통해 '길'이라는 모티프가 원문과 번역 본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로 기능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1. 잠언 4:10-19 MT와 LXX의 대조 분석

10절

שמע בני וקח אומרי וירבו לך שנות חיים:

들어라 나의 아들이a 그리고 나의 말들을 잡으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해들이 많아질 것이다.

ἀκούε υἱέ, καὶ δέξαι ἐμοὺς λόγους, καὶ πληθυνθήσεται ἔτη ζωῆς σου, ἵνα σοὶ γένωνται πολλαὶ ὁδοὶ βίου,

들어라, 아들이a, 그리고 나의 말들을 취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생계의 많은 길들이 너에게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

<표 2> 잠언 4:10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명령문	שמע קח	"Ακουε δέξαι	동화	모두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
목적어	אומרי	ἐμοὺς λόγους	동화	소유대명사+복수 명사
결과	וירבו לך שנות חיים	καὶ πληθυνθήσεται ἔτη ζωῆς σου	동화	미래형 동사+소유 구조
추가	없음	ἵνα σοὶ γένωνται πολλαὶ ὁδοὶ βίου,	이화	목적절(ἵνα+접속법)+복수 주어

10절은 “들으라”(שמע, ἄκουε)와 “취하라”, “잡으라”(קח, δέξαι)로 이중 명령 구조로 되어 있다.²⁹⁾ 이중 명령 구조는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 되는 수사적 기법으로, 첫 번째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의 전제 조건이 되거나 서로 보완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여기서 들으라는 단순한 청각적 듣기가

29) 왈키는 ‘들으라’ 뒤에 ‘받으라’라는 두 번째 명령을 덧붙임으로써 말씀에 대한 내면화가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B. K. Waltke, *Proverbs 1-15*, 287 참고; 로우-나이다(J. P. Louw and E. A. Nida)에 따르면, δέχομαι(받다)는 ‘꼭 잡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6), 219. 따라서 들으라 그리고 ‘꼭 잡아라’도 이중 명령의 강조가 되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아니라 순종과 적극적인 받아들임을 의미하며, 취하라/잡으라는 지혜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동을 강조한다.

שְׁנֹתַי וְקֶלְכָּךְ וְצֶהְרָה וְזֶהְרָה σου를 비교하면, MT의 קָלְךָ(너에게, 너를 위한)는 LXX에서 소유격 σου(너의)를 등가어로 사용했다. 또한 MT의 שְׁנֹתַי(생명)은 형태상 복수이지만, LXX에서는 ζῶης(생명의)로 단수 소유격 등가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번역자가 LXX에서 소유격을 사용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명의 특성을 한정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0절에서 MT는 וְבָרְכֶיךָ(바브+미완료)가 LXX에서는 πληθυνθήσεται(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가 사용되었다. MT의 경우 단순하게 연결하는 바브나 병렬 바브 다음에 나오는 익톨형은 바브 없이 동일한 시간과 시상을 갖는다.³⁰⁾ 따라서 미래형으로 볼 수 있기에 LXX에서도 미래로 나타나며 수동적 표현이 더해졌다. 또한 LXX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ἵνα(~하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ἵνα σοι γένωνται πολλαὶ ὁδοὶ βίου가 추가 되었다. 이 추가 구문은 MT와 LXX 사이의 뚜렷한 이화현상을 보여 준다. MT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목적절의 첨가는 단순한 번역상의 변형을 넘어서는 해석적 확장으로, 번역자가 원문에 없는 내용을 그리스 시대 독자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삽입한 경우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보면, MT는 지혜의 가르침이 생명의 양적 연장(해들)을 강조하는 반면, LXX는 βίου(생계, 생활방식)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삶의 질적 풍요로움과 다양한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원리임을 나타낸다. LXX의 번역자는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지혜가 제공하는 “생계의 많은 길들”(πολλαὶ ὁδοὶ βίου)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혜의 실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두 길’ 모티프와도 연결되며, 지혜의 길이 단순히 하나의 경로가 아닌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인생 원리임을 시사한다.

11절

בְּדֶרֶךְ חֻכְמָה הוֹרְתִיךָ הַדֶּרֶךְ כִּתְוִיךָ בְּמַעֲשֵׂי יִשְׂרָאֵל

지혜의 길로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를 옳고음의 길들로 이끌었다.

ὁδοὺς γὰρ σοφίας διδάσκω σε, ἐμβιβάζω δέ σε τροχαίης ὀρθαίης.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³¹⁾ 지혜의 길들을 가르치고, 또한 나는 너를 올바

30) P. 주용, T. 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422.

31) 이 중 대격을 사용할 때는 인칭대명사를 간접목적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182에서 ‘διδάσκω’ 동사 예시 참조.

른 바퀴 자국들(길들)로 이끌기 때문이다.

<표 3> 잠언 7:11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사역 진술	הוֹרִיתִי	διδάσκω σε	동화	히브리어 완료형 → 그리스어 현재형(진술)
목적어	בְּדֶרֶךְ הַחֲכָמָה	ὁδοὺς σοφίας	동화	히브리어 단수+여성명사 → 그리스어 복수+여성명사
사역 진술	הִדְרִכְתִּיךָ	ἐμβιβάζω δέ σε	이화	히브리어 완료형 → 그리스어 현재형(진술)
목적어	בְּמַעְגְלֵי-יִשָּׁר	τροχιαῖς ὀρθαῖς	동화	히브리어 복수+여성명사 → 그리스어 복수+여성명사

MT 11절은 두 개의 히필 완료형을 사용한다(הִדְרִכְתִּיךָ, הוֹרִיתִי). 히필은 능동적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LXX은 현재 시제를 등가어로 사용했다(διδάσκω, ἐμβιβάζω). 여기서 ἐμβιβάζω는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MT에선 “이끈다”는 뜻을 LXX에서는 “태운다”라는 의미로 바꾸었다. LSJ(Liddell-Scott-Jones) 사전에선 ἐμβιβάζω가 ‘이끈다’, ‘지도하다’라는 의미로 많은 철학자들이 기원전부터 기원후까지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크세노폰, 데모스테네스, 폴리비우스, 펠로스트라투스 등).³²⁾ 이로 보건대, LXX은 ἐμβιβάζω를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닌, 도덕적이며 교훈적 인도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동사 선택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적극적 행위로서, 부모가 자녀를 특정 방향으로 태워 보내는 것처럼 인생의 향로를 정해주는 적극적 인도 개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 신적인 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현재 교사의 관심사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32) H. G. Liddell,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 539.

지침에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길은 단순한 물리적 경로가 아닌 삶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하는 근본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며, LXX의 τροχιαῖς ὁρθαῖς (올바른 바퀴 자국들)라는 표현은 이러한 삶의 원리가 구체적인 발자국처럼 따라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번역자가 사용한 접속사 γάρ와 ὅτι는 이화현상으로 이 가르침의 논리적 구조를 강화하여, 삶의 방향이 단순한 제안이 아닌 필수적 지침이자 근거임을 강조하고 있다.

12절

בְּלִכְתְּךָ לֹא יִצָּר צַעֲדֶךָ וְאִם תִּתְּרֵן לֹא תִשָּׁל:

네가 걸을 때 네 발걸음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네가 달릴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ἐὰν γὰρ πορεύῃ, οὐ συγκλεισθήσεται σου τὰ διαβήματα, ἐὰν δὲ τρέχῃς, οὐ κοπιᾶσεις.

왜냐하면 네가 길을 간다면, 너의 발걸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고, 또한 네가 달린다 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표 4> 잠언 4:12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조건절 1	בְּלִכְתְּךָ	ἐὰν πορεύῃ	동화	칼 부정사 + 2인칭 대명사 → 2인칭 조건절
결과절 1	לֹא יִצָּר צַעֲדֶךָ	οὐ συγκλεισθήσεται σου τὰ διαβήματα	동화	부정+미완료형 → 부정+미래 수동+소유 구조
조건절 2	וְאִם תִּתְּרֵן	ἐὰν δὲ τρέχῃς	동화	조건 접속사+미완료형 → 2인칭 조건절
결과절 2	לֹא תִשָּׁל	οὐ κοπιᾶσεις	이화	부정+니팔 미완료형 → 부정+미래형

12절은 지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약속을 담고 있다. MT

33) C. H. To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899), 92.

의 לִלְכֹךְ (네가 걸을 때)와 LXX의 $\epsilon\acute{\alpha}\nu \pi\omicron\rho\epsilon\acute{\upsilon}\eta$ (네가 간다면)는 동화현상을 보여 준다. 오코너(M. P. O'Connor)는 부정사 연계형에 대명 접미사가 붙는 경우 명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하다고 설명했다.³⁴⁾ 따라서 לִלְכֹךְ 는 “네 걸음”, “네 걷기”의 의미로 볼 수 있다. LXX는 이 부정사 구문을 조건절로 전환했는데, 본문에는 총 두 개의 조건절이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부정사 구문이 조건절로 번역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MT의 조건 접속사+미완료형 וְאִם־תֵּרֶוּן 가 LXX에서 $\epsilon\acute{\alpha}\nu \delta\epsilon \tau\rho\epsilon\chi\eta\varsigma$ 로 등가어가 된 경우이다. 부정사 구문을 조건절로 번역한 것은 특이하지만, 의미상 큰 변화가 없어 동화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절 다음의 결과절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MT의 לֹא תִכָּשֵׁ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이 LXX에서 $\omicron\upsilon \kappa\omicron\pi\acute{\iota}\alpha\sigma\epsilon\iota\varsigma$ (지치지 않을 것이다)로 등가어 사용되어, 의미상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번역자의 해석적 개입을 보여주는 이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omicron\upsilon \kappa\omicron\pi\acute{\iota}\alpha\sigma\epsilon\iota\varsigma$ 는 $\kappa\omicron\pi\acute{\iota}\alpha\omega$ 동사의 부정($\omicron\upsilon$)+미래형으로, 몬타나리(Montanari) 사전에 따르면 이 동사는 “피로하다, 지치다”(to be tired, grow tired)와 “수고하다, 열심히 일하다”(to toil, work hard, labor)라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갖는다.³⁵⁾ 특히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는 여정이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의미한다. 히브리어의 “넘어지지 않음”(לֹא תִכָּשֵׁל)이 LXX에서 “지치지 않음”으로 번역된 것은, 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단순히 실패나 실족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인 활력과 힘을 얻게 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레이번-프라이(W. D. Reayburn and E. McG. Fry)는 잠언 4:12가 욱기 18:7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³⁶⁾ 그러면서 12절은 서로 간에 점진적인 평행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걷다”에서 “달리다”로 “방해받다”(막히다)에서 “넘어지다”로 강도가 증가한다고 말한다.³⁷⁾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장애물이 없는 평탄함을 넘어 그리스적 관점에서 ‘지치지 않는 삶’ 곧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34) B. K. Waltke and M. P.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600.

35) F. Montanari, “ $\kappa\omicron\pi\acute{\iota}\alpha\omega$,”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M. Goh and C. Schroeder, eds., (Leiden; Boston: Brill, 2015).

36) W. D. Reayburn and E. McG. Fry, *A Handbook on Proverbs*, UBS Handbook Seri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0), 105.

37) Ibid.

13절

הַחֹק בְּמוֹסֵר אֶל־תִּרְךָ נִצְרָה כִּי־הִיא חַיִּיךָ:

너는 훈계를 잡으라.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지켜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이기 때문이다.

ἐπιλαβοῦ ἐμῆς παιδείας, μὴ ἀφῆς, ἀλλὰ φύλαξον αὐτήν σεαυτῷ εἰς ζωήν σου.

너는 나의 교훈을 잡아라, 버리지 말라, 오히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네 스스로 그것을 지켜라.

<표 5> 잠언 4:13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명령문1	הַחֹק	ἐπιλαβοῦ	동화	히브리어 명령형 → 그리스어 명령형
목적어	בְּמוֹסֵר	ἐμῆς παιδείας	이화	히브리어 ‘훈계’ → 그리스어 ‘나의 교훈’, 소유격 추가(이화)
명령문2	אֶל־תִּרְךָ	μὴ ἀφῆς	동화	히브리어 부정 명령 → 그리스어 부정 명령, 의미 일치
명령문3	נִצְרָה	φύλαξον αὐτήν	동화	히브리어 명령형 → 그리스어 명령형
이유절	כִּי־הִיא חַיִּיךָ	σεαυτῷ εἰς ζωήν σου	이화	히브리어 이유절 대신 목적으로 대체

13절은 지혜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지키라는 권면을 한다. MT는 세 개의 명령문(הַחֹק, אֶל־תִּרְךָ, נִצְרָה)을 사용하여 “훈계를 잡으라, 놓치지 말라, 지켜라”라고 권면하며, 그 이유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LXX도 세 개의 명령문(ἐπιλαβοῦ, μὴ ἀφῆς, φύλαξον)을 사용하여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화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LXX는 MT의 “훈계”(בְּמוֹסֵר)를 “나의 교훈”(ἐμῆς παιδείας)으로 번역하였다. LXX는 대명사 소유격을 추가하여 교훈에 관한 분명한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지혜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함을 분명한 출처를 통해 더 강조하는 것이다. 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

다.³⁸⁾ 10-13절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긍정적인 권고는 이제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경고와 균형을 이룬다(14-17절).³⁹⁾

둘째, MT의 이유절(קִיּוּם לֵבָב)이 LXX에선 목적(σκαυτῶ εἰς ζωήν σου)으로 변형되어 이화현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LXX 번역자가 MT의 기본 메시지는 유지하면서도, 그리스 문화권 독자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의 개인적 적용과 실천적 유익을 더 강조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네 자신을 위해”(σκαυτῶ)라는 표현의 추가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중시하는 자기 계발과 개인적 유익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3절에서 명령문의 기본 구조는 동화현상을 보이지만, 소유격 추가와 이유절의 목적절 대체라는 이화현상을 통해 번역자의 해석적 의도가 드러난다. 13절의 강력한 권면은 이어지는 14-17절에서 묘사되는 악인의 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골딩게이(J. Goldingay)가 지적하듯, 지혜를 붙잡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선택의 문제이며, 이는 14-17절에서 불신 실험과 파괴적 삶의 방식으로 묘사된다.⁴⁰⁾ 악인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16절), 악의 떡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는(17절) 모습은 지혜의 가르침을 붙잡지 않을 때 삶이 얼마나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13절의 “그것이 네 생명”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 사이의 실존적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14-15절

בְּאַרְחַ רְשָׁעִים אֶל-תְּבֹנָא וְאֶל-תַּאשֵׁר בְּדַרְךְ רָעִים:
פְּרִיעוּ אֶל-תַּעֲבֹרֵיבוּ שָׂטָה מֵעֲלֵיו וְעִבֹר:

악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을 피하고, 그 위로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지나가라.

ὁδοὺς ἀσεβῶν μὴ ἐπέλθῃς μηδὲ ζηλώσῃς ὁδοὺς παρανόμων, ἐν ᾧ ἂν τόπω στρατοπεδεύσωσιν, μὴ ἐπέλθῃς ἐκεῖ, ἕκκλινον δὲ ἀπ’ αὐτῶν καὶ παράλλαξον.

불경건한 자들의 길들로 나아가지 말고, 불법한 자들의 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진을 치는 어떤 장소에도 가지 말고, 그들로부터 돌이켜 비켜 가라.

38) L. Wilson,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 G. Firth, ed.,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17 (London: InterVarsity Press, 2017), 93.

39) Ibid.

40) J. Goldingay, *Proverbs* (Grand Rapids: Eerdmans, 2023), “PROVERBS 4:1-27” 참조.

<표 6> 잠언 4:14-15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명령문 1	אַל-תִּבְאֵ	μη̄ ἐπέλθης	동화	부정 명령형 유지, 의미 일치
길표현 1	בְּאַרְחַרְרֵי שָׁעִים	ὁδοὺς ἀσεβῶν	이화	단수→복수, ‘악인’→ ‘불경건한 자’로 윤리 적 변환
명령문 2	וְאַל-תִּשְׁאָר	μηδὲ ζηλώσης	이화	‘따르다’→‘부러워 하다’로 의미 변화
길표현 2	בְּדַרְרֵי רָעִים	ὁδοὺς παρανόμων	이화	단수→복수, ‘악한 자’→‘불법한 자’ 로 법적 용어 사용
명령문 3	אַל-תִּעֲבֹר-בּוֹ	μη̄ ἐπέλθης ἐκεῖ	동화	부정 명령형 유지
추가 구문	없음	ἐν ᾧ ἂν τόπω στρατοπεδεύσωσιν	이화	군사적 은유 추가, 해석적 확장
명령문 4	שָׁמַר מִמֵּלִי וְעָבֹר	ἔκκλινον δὲ ἀπ’ αὐτῶν καὶ παράλλαξον	동화	명령형 유지

14-15절은 악인의 길을 피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MT의 ‘길’ 관련 단어 אַרְחַרְרֵי와 דַרְרֵי가 11절과 마찬가지로 모두 LXX에서 ὁδός로 등가어가 사용되었으며, 단수형이 복수형으로 바뀌었다. 또한 “악인”(אֲשֶׁרֵי)과 “악한 자”(רָעִים)가 LXX에서 각각 “불경건한 자”(ἀσεβῶν)와 “불법한 자”(παρανόμων)로 등가 대응되어, 그리스 문화권의 윤리적이며 종교적·법적 용어로 변환되었다.

MT의 “따르지 말라”(וְאַל-תִּשְׁאָר)가 LXX에서 “부러워하지 말라”(μηδὲ ζηλώσης)를 등가어로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위의 금지를 넘어, 악인의 길에 대한 내적 욕망까지 경계하는 의미로 확장된 이화현상이다. 14-15절에 나타난 네 가지의 명령을 구체화하여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이 나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들을 떠나세요! 당신만의 길로만 가세요!”로 번

역할 수 있다.⁴¹⁾ 또한 15절에서 LXX는 MT에 없는 군사적 은유(ἐν ᾧ ἂν τόπῳ στρατοπεδεύσωσιν, “그들이 진을 치는 어떤 장소”)를 추가하여, 악인의 길을 더욱 위험한 전쟁터로 묘사하는 해석적 확장을 보여 준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LXX 번역자가 MT 원문의 윤리적 경고를 그리스 문화권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악인의 길을 더욱 구체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강조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길 모티프가 단순한 행위의 방향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 원리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16-17절

כִּי לֹא יִשְׁנוּ אִם-לֹא יָרְעוּ וְנִנְזְלָה שְׁנָתָם אִם-לֹא יִכְשִׁילוּ:
כִּי לְהִמּוֹ לְהֵם רָשָׁע וַיִּין חֲמָסִים יִשְׁתּוּ: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잠이 빼앗긴다. 그들은 악의 떡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οὐ γὰρ μὴ ὑπνώσωσιν, [I ἔαν μὴ I] κακοποιήσωσιν, ἀφήρηται ὁ ὕπνος αὐτῶν, καὶ οὐ κοιμῶνται, οἶδε γὰρ σιτοῦνται σῖτα ἀσεβείας, οἶνω δὲ παρανόμῳ μεθύσκονται.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그들의 잠은 빼앗겼으며, 그들은 자지 않는다. 이들은 불경건의 음식을 먹고, 불법의 포도주에 취한다.

<표 7> 잠언 4:16-17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조건절 1	לֹא יִשְׁנוּ אִם-לֹא יָרְעוּ	μὴ ὑπνώσωσιν, ἔαν μὴ κακοποιήσωσιν	동화	조건 구조 유지
결과절	וְנִנְזְלָה שְׁנָתָם	ἀφήρηται ὁ ὕπνος αὐτῶν	동화	수동 의미 유지
추가 구문	없음	καὶ οὐ κοιμῶνται	이화	해석적 확장, 강조 반복
조건절 2	אִם-לֹא יִכְשִׁילוּ	없음	이화	히브리어 구문 생략

41) W. D. Reyrburn and E. McG. Fry, *Handbook on Proverbs*, 107.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음식 비유	רָשַׁע לְהַמְנוּז לְחֶמֶד	σιτοῦνται σίτα ἀσεβείας	이화	‘악’→‘불경건’으로 종교적 용어 사용
음료 비유	יַיִן הַמְּסִים שְׂתוּ	οἴνω δὲ παραινόμῳ μεθύσκονται	이화	‘폭력’→‘불법’으로 법적 용어 사용, ‘마시다’→‘취하다’ 로 강조

16절에서 LXX는 MT에는 없는 *καὶ οὐ κοιμῶνται*(그리고 그들은 자지 않는다)가 추가되었다. 악인들은 악한 구상을 세우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은 밤을 우선시하는데, 밤에는 다음 날을 위한 행위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붕괴를 초래하는 내적 충동(inner impulse)을 의미한다.⁴²⁾

MT의 *יַיִן הַמְּסִים*는 LXX에서 생략되었다. 이는 조건절에 대한 생략 이화현상으로 번역자의 이해 부족보다는 문맥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MT의 “마신다”(שתו)가 LXX에서 “취한다”(μεθύσκονται)로 등가어가 사용된 것은 의미의 확장과 강조를 통한 이화현상이다. 단순히 ‘마시는’ 행위를 넘어 ‘취하는’ 상태로 표현함으로써, 악인의 행위를 더욱 과도하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묘사하여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악인들이 선택한 결과로 전리품(빵/포도주)을 먹고 마시지만, 그 근원은 희생자들에게 해를 입힌 악한 행동(폭력의 포도주)에서 비롯된 것이다.⁴³⁾

18-19절

וְאִרְחַ צְדִיקִים כְּאֹרֶךְ הַנֶּחֱלָךְ וְאֹרֶךְ עַד-נִכּוֹן הַיּוֹם:

דֶּרֶךְ רָשָׁעִים כְּאֶפְלָה לֹא יִדְעוּ בְּמָה יִכְשְׁלוּ: פ

의인들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밝아져 한낮에 이른다. 악인들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질지 알지 못한다.

αἱ δὲ ὁδοὶ τῶν δικαίων ὁμοίως φωτὶ λάμπουσιν, προπορεύονται καὶ

42) B.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290. 내적 충동(inner impulse)은 잠 4:16에서 언급된 악인들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는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심리적 추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 충동은 통제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LXX의 추가 구문 “그들은 자지 않는다”(καὶ οὐ κοιμῶνται)는 이러한 중독적 집착을 강조하며, 악행이 그들의 생존과 삶의 원천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43) L. Wilson, *Proverbs*, 93.

φωτίζουσιν, ἕως [I κατορθώση ἡ ἡμέρα αἱ δὲ ὁδοὶ τῶν ἀσεβῶν σκοτειναί, οὐκ οἶδασιν πῶς προσκόπτουσιν.

의로운 자들의 길들은 빛처럼 빛나며, 앞으로 나아가고 비추다가 날이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그렇다. 불경건한 자들의 길들은 어둡고, 그들은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표 8> 잠언 4:18-19

구분	MT	LXX	기법	문법 요소
비유	כָּאוֹר נֹהַר	ὁμοίως φωτὶ λάμπουσιν	동화	비유 구조 유지
동사 묘사	הוֹלֵךְ נֹאֵר	προπορεύονται καὶ φωτίζουσιν	이화	분사→동사, 단수→복수, 의미 확장
시간 표현	עַד-נִכְוֵן הַיּוֹם	ἕως κατορθώση ἡ ἡμέρα	동화	시간 개념 유지
상태 묘사	כְּאֶפְלָה	σκοτειναί	동화	비유→형용사
결과 묘사	לֹא יָדְעוּ בְמַה יִּפְּסְלוּ	οὐκ οἶδασιν πῶς προσκόπτουσιν	동화	부정문 유지

18-19절은 의인에게 오는 혜택과 악인의 재앙을 대조한다. 이것은 잠언 1장을 다시 연상케 하는데, 악인들이 새가 그물에 걸리듯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졌듯이, 악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⁴⁴⁾ 하지만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희미한 빛을 제공하지만, 결국 그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안전한 통행을 제공한다.⁴⁵⁾

여기서 18절의 동사 묘사가 독특하게 표현된다. MT의 הוֹלֵךְ נֹאֵר(점점 더 밝아져)가 LXX에서 προπορεύονται καὶ φωτίζουσιν(앞으로 나아가고 비추다)으로 등가어가 사용되었다. MT의 단수 분사가 LXX에서는 복수 동사로 바뀌었고, ‘밝아지다’라는 수동적 의미가 ‘나아가다’와 ‘비추다’라는 능동적 행위로 확장되었다. 이는 의인의 길이 단순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

44) P. E. Kopta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Proverb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149.

45) Ibid.

적으로 전진하고 빛을 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번역자의 이해를 보여 준다.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이 “어둠과 같다”(הַלְּאִשָּׁרִים)는 MT의 비유적 표현이 LXX에서는 “어둡다”(σκοτειναί)라는 직접적인 서술 형용사를 등가어로 사용했다. 이는 그리스어의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는 동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T와 LXX 모두 악인들이 ‘걸려 넘어질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결과를 강조하여, 무지와 실패라는 악인의 운명을 분명히 한다. 전체적으로 18-19절의 번역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분명하게 그리고 있으며, 이는 길 모티프가 단순한 행위의 방향이 아니라, 삶의 원리와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 준다.

3.2. ‘길’의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로서의 의미

MT와 LXX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길 모티프는 단순한 물리적 경로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 방향성과 삶의 원리를 담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LXX에서 히브리어 단수형 길(דֶרֶךְ)이 복수형(ὁδοί)으로 일관되게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길이 단일한 선택이 아닌,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존재 방식을 의미함을 암시한다.

길이 삶의 방향으로 기능하는 측면은 11절의 지혜의 길과 14-15절의 악인의 길 사이의 대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행동 이상의 존재론적 방향성을 보여 준다. 내면의 방향성까지 다루고 있음은 MT의 “따르지 말라”(אַל תִּהְיוּ אַחֲרָיו)를 LXX가 “부러워하지 말라”(μὴ ἐζηλώσῃς)를 등가어로 사용한 점에서 확인된다. 16-17절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더욱 구체화된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독적 상태에 있으며, 악의 떡과 폭력의 포도주를 취하는 파괴적 행태를 보인다. 이는 잘못된 삶의 방향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리스 문화권 독자들에게 이러한 방향성의 심각성은 LXX가 “불경건”(ἀσεβείας)과 “불법”(παραινόμῳ)이라는 종교적·법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심화된다.

실천적 지침으로서, 길이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중요하다. LXX가 10절에 추가한 “생계의 많은 길들”(πολλαὶ ὁδοὶ βίου)이라는 표현은 지혜가 일상 영역에 적용되는 구체적 원리임을 강조한다. 12절에서는 MT의 “넘어지지 않음”(לֹא תִפֹּל)이 LXX에서 “지치지 않음”(οὐ κοπιᾷσεις)으로 등가어를 사용했다. 이는 지혜의 길이 단순히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는 삶의 원리임을 시사한다. 13절에서는 “훈계를 잡으라”(חַזְקוּ בְּמוֹסֵר)가 LXX에서 “나의 교훈을 잡아라”(ἐπιλαβού

ἐμῆς παιδείας)로 번역되어 소유대명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원리의 출처와 권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빛과 어둠의 대조를 보여주는 18-19절은 이러한 원리의 궁극적 결과를 드러낸다. MT의 “점점 더 밝아져”(וַיִּשְׁׁרַח וַיִּבְרַח)를 LXX가 “앞으로 나아가고 비춘다”(προπορεύονται καὶ φωτίζουσιν)를 등가어로 사용한 것은 길이 적극적인 진행과 영향력의 원리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번역 차이는 단순한 언어적 변화를 넘어서, 길 모티프의 동적이고 변혁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삶의 원리로서 지혜가 지닌 점진적 발전과 확장의 특성을 드러낸다.

4. 결론

본 연구는 잠언 4:10-19에 나타난 길 모티프를 MT와 LXX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잠언 4:10-19의 ‘길’ 모티프에서 MT와 LXX 번역에서 상이한 언어적 차이와 신학적 해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번역자에 의해 재해석된 삶의 원리와 방향성은 성경의 번역학적·신학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잠언 4장은 지혜의 세대 간 전승(1-9절), 지혜의 방향성(10-19절), 그리고 지혜의 실천적 적용(20-27절)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중심인 10-19절의 길 모티프는 이 연속체의 중추로서, 첫 단락의 세대 간 지혜 전승이 마지막 단락의 실천적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MT와 LXX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길 모티프는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라는 두 가지 핵심 차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⁴⁶⁾ 삶의 방향으로서의 길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지향성을 결정짓는 선택의 문제로,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 사이의 대비는 첫 단락에서 언급된 세대 간 지혜 전승의 목적을 보여 준다. 삶의 원리로서의 길은 일상적 결정과 행동에 적용되는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20-27절에서 구체화되는 실천과 직접 연결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길 모티프의 번역학적 분석을 통해 잠언 4장 전체의 구조적·신학적 일관성을 밝히는 데 있다. MT와 LXX의 비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길 모티프

46) 본 연구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 실용적 제언을 제공한다. 『개역개정』 잠 4:11, 14, 18-19의 ‘길’에 “삶의 원리” 또는 “삶의 방향”이라는 설명적 각주를 추가하면 독자들이 이 모티프의 존재론적·실천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각주는 ‘길’이 단순한 물리적 경로가 아닌 인생의 근본적 선택과 일상적 실천 원리를 의미함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독자들에게 잠언의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이해를 보여 주며, 이는 현대적 맥락에서 성경 해석과 적용에 풍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마소라 사본, 칠십인역 사본, 동화현상, 이화현상, 잠언.

Masoretic Text (MT), Septuagint Manuscript (LXX), Assimilation, Dissimilation, Proverbs.

(투고 일자: 2025년 6월 7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10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
- Septuaginta*, ed., Alfred Rahlf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서울: 바오로딸, 2009.
-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성서학 학술세미나』 (2010), 1-22.
- 우상혁, “칠십인역의 번역 기술과 히브리어 동사 형태 - 읍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0 (2007), 311-328.
- 주용, P., 무라오카, T.,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Clifford, R. J., *Proverbs: A Commentary*, 1st ed.,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London; Leid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Fox, M. V.,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Yale Bible 18A,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Goldingay, J., *Proverbs*, Grand Rapids: Eerdmans, 2023.
- Harl, M., Dorival, G., and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éli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 Jenni, E. and Westermann, C.,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 Koehler, L., Baumgartner, W., and Richardson, M. E. J.,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94-2000.
- Koptak, P. E.,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Proverb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Liddell, H. G.,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
- Longman III, T., *How to Read Proverb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2.
- Longman III, T., *Proverb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6.
- Montanari, F.,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M. Goh and C. Schroeder, eds., Leiden; Boston: Brill, 2015.
- Murphy, R. E.,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2, Grand Rapids: Zondervan, 2015.
- Overland, P., *Proverbs*, D. W. Baker and G. J. Wenham, ed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15, London: Apollos, 2022.
- Reyburn, W. D. and Fry, E. McG., *A Handbook on Proverbs*, UBS Handbook

Seri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0.

- Schipper, B. U., *Proverbs 1-15: A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1:1-15:33*, T. Krüger, ed., S. Germany, tr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 Swete, H. B.,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4.
- Tov, E.,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3rd ed.,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 Tov, E., “Writing an Introduction to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A Modern Approach,” *Studia Biblica Slovaca* 15:2 (2023), 120-121.
- Toy, C.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899.
- VanGemeren, W.,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altke, B. K. and O’Connor, M. P.,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altke, B.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 Wilson, L.,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avid G. Firth, ed.,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17, London: InterVarsity Press, 2017.
- Wolf, H., “453 ךָּרָךְ”, R. L. Harris,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ed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99, 196-197.

<Abstrac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Way' Motif in
Proverbs 4:10-19: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soretic Text and the Septuagint**

Hyoseob Won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way' (דָרֶךְ / ὁδός) motif in Proverbs 4:10-19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asoretic Text (MT) and the Septuagint (LXX), proposing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that integrates the existential and practical dimensions of wisdom literature.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emphasized either the ontological significance or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way' motif,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concept functions simultaneously as both 'life direction' and 'life principle.'

The methodology employs textual comparison between the MT and the LXX, examining assimilation and dissimilation phenomena in translation to understand how ancient translators interpreted the Hebrew text. The analysis reveals that LXX translators consistently rendered singular Hebrew terms for 'way' into plural forms, suggesting a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life's pathways. Particularly significant is the LXX's addition of explanatory clauses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s that exp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wisdom.

Key findings include: (1) the 'way' motif serves as a foundational framework connect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isdom (4:1-9) with its practical application (4:20-27), (2) LXX translation strategies reflect Hellenistic interpretations that emphasize both the progressive nature of righteous living and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wickedness, (3) the contrast between the way of wisdom and the way of the wicked functions as fundamental principles governing human existence.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way' motif in Proverb 4:10-19 provides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wisdom that encompasses both existential orientation and practical guidance.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MT and the LXX enriches our understanding of how ancient interpreters understood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biblical wisdom for contemporary application.